'1억 다툼…'

4년만에 부활한 명인전 우승상금도 대폭 증액

'천적' 이세돌-조한승, 내달 2일부터 결승 충돌

〈이세돌 9단〉

〈조한승 9단〉

우승 상금 1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전인 명인전이 이세돌과 조한승의 격돌로 압축됐다.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동률재대국에서 조한승이 목진석에게 234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명인전 결승 5번기는 지난 1995년 함께 입단한 이세돌과 조한승의 대결인데다 '천적'의 악연으로 맺어진 기사들의 대국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바둑계에서는 리그 전적 7승2패로 이 9단이 결승무대에 직행할 때만해도 무난히 명인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했다. '신들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최근 이 9단의 상승세가 무서웠기 때문.

그러나 조한승이 동률재대국을 통해 결승까지 치고 올라오자 패권의 향배를 점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반상의 아티스트'로 통하는 조한승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이세돌의 덜미를 잡아 '이세돌의 천적'이라고 불릴 정도. 조9단이 국내외를 통틀어 몇명 되지 않는 '쎈돌의 천적'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명인전 패권은 예측불허 상황으로 돌변했다.

조한승은 이세돌이 지난 2000년 32연승, 2007년 23연승을 할 때 나타나 연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장본인이다. 또 지난해 천원전에서는 이세돌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둬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 9단은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2%가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기사지만 유독 이세돌만 만나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세돌은 올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조 9단과의 상대전적에서도 14승 11패로 앞서는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명인전에서 이세돌이 조한승과의 천적관계를 청산하고 1억원의 주인공이 될 지, 조한승이 또 한번 이세돌을 따돌리고 대어를 낚아올릴 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제34기를 끝으로 한동안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명인전은 올해부터 '강원랜드배 명인전'으로 새로 부활하면서 우승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대회 진행 방식도 크게 변화했다.

본선 경기가 10명 풀 리그로 바뀌면서 도전기가 없어지는 대신, 리그 성적 1, 2위가 결승 5번기를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야마 유타 7단, 日 신인왕 타이틀 획득

일본의 이야마 유타 7단이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야마 유타 7단은 최근 열린 제32회 일본 신인왕전 결승3번기 2국에서 모치즈키 겐이치 6단을 131수 만에 흑 불계승로 꺾고 2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이야마 7단은 이시이 쿠니오 9단 문하생으로 지난 2005년 아함동산배 결승전에서 고바야시 사토루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아함동산배 우승으로 최연소 타이틀 획득기록도 세웠다.

또 올해 기성전 리그전에 진입하면서 역시 최연소(17세 10개월) 기성전 리그전 진입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는 2005~2007년 3년 연속 중야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976년 창설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일본 신인왕전은 25세 이하, 7단 이하의 기사들이 출전하는 대국이다.

제한시간은 3시간으로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상 9단, 여유있는 승리

광주 KIXX의 박정상 9단(왼쪽)이 지난 23일 열린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 10라운드 4경기에서 울산 디아채 나종훈 6단과 대국하고 있다. 박 9단이 222수 끝에 백불계승을 거뒀다.

〈사이버오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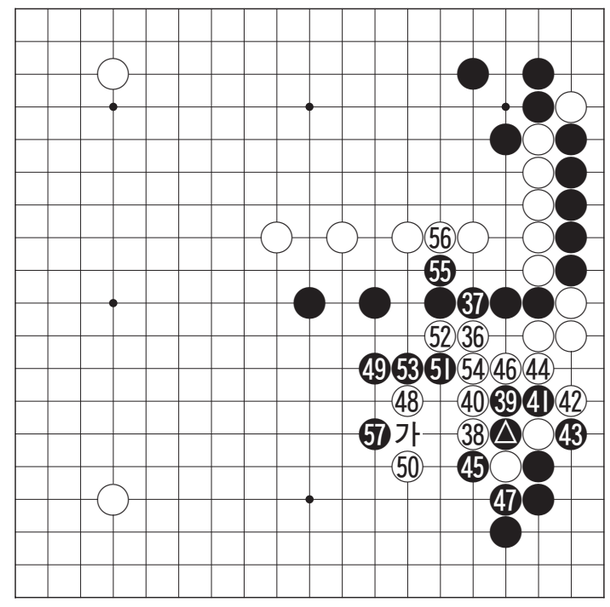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개인전 결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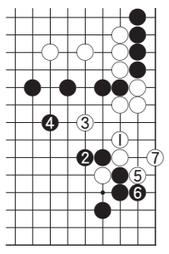
궁지에 몰린 극약 처방

4보 (36~57)

白 이창준 5단 ((주)송림)

黑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A)





〈참고도〉

흑 ▲로 끊겨 백이 위기에 몰린 장면이다.

이창준 5단은 고심끝에 백 38로 모는 임기응변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소위 극약처방에 해당한다.

흑 41로 잡힌 실리손해가 너무 크다. 그만큼 수습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백 38로는 다른 수가 없었을까.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늘고 3을 선수한 다음 7까지 자체에서 살아두는 수가 있었다.

이것이라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흑으로부터의 호된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다.

일단 흑 41로 백 한점을 잡은 실리가 크며 백이 궁여지책으로 백 42와 44로 돌렸으나 흑도 차분하게 47까지 때려 내며 우하귀에 무려 20여 집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백 48이 어긋난 행마였다. 이 수로는 한발 아래 '가'의 곳이 바른 수로 박정규 5단이 흑 49로 두어 오자 바로 잘못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창준 5단이 초반부터 난조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박정규 5단의 공격이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다.

흑 55가 또 선수를 잡기 위한 빈삼각의 호수였으며 57로 급소를 때려 흑이 신바람을 내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조치훈 9단, 생애 통산 72번째 우승 도전

조치훈 9단이 생애통산 7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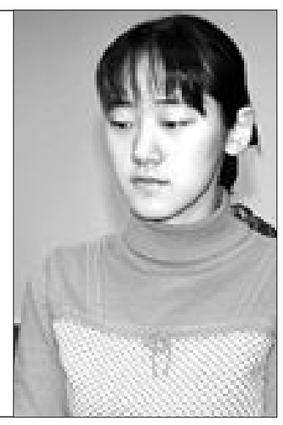
조치훈 9단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14기 일본 아함동산배 준결승전에서 오가다마사키 9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에 앞서 열린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장쉬 9단이 다카오신지 9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조치훈 9단과 장쉬 9단은 2002년 제9회 아함동산배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조9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생애 64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미 일본 최다 타이틀 획득 기록(71회)을 보유하고 있는 조치훈 9단은 단판 승부로 벌어지는 결승전에서 장쉬 9단을 상대로 생애 통산 72번째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게 된다.

이다혜 3단 '여류 명인전' 도전자 결정전 진출



이다혜 3단이 최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기 STX배 여류 명인전 승자조 결승전에서 조혜연 7단을 272수 끝에 흑 반집으로 따돌리고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했다.

이 3단은 8강에서 고주연 초단을, 4강에서 김은선 3단을 꺾은 뒤 준결승에서 라이벌 조혜연 7단마저 제압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3단은 지난해 '철의 여제' 루이 나이웨이 9단에 막혀 준우승에 머무른 바 있어 각오가 남다르다.

그러나 패자조에서 도전자 결정전을 기약하고 있는 기사 또한 만만치 않다. 패자조에서 도권권을 다툴 조혜연 7단과 대리배 우승자인 박지은 8단 가운데 한 명과 조우해야 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어느 누가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하더라도 이 3단으로서는 버거운 상대다.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쌍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횟집, 레스토카페, 고기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쌍용아파트 정문앞
학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학원최적지)
· 봉선동 최고요지 (쌍용·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자역
· 초·중·고 인접
학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로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1억 월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도
· 광산구 산정동 하남택지지구뒷면 - 답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8m도로접 6차선계획도로접
· 수완택지지구 D블럭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앞 - 대지 140평, 건평 200평, 매매가 11억5천(융자4억)신축건물
모텔매매
· 여수시 학동 바닷가앞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 42 융자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합동법률경매㈜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9 H.P : 011-1770-3328
▶아파트 (단위 만원)
▶주택/다가구(원룸)
▶상가+주택
▶근린시설/상가
▶숙박시설(모텔)
▶대지/농지/임야/공장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상가주택/주택
▶공장
▶임야/농지
▶아파트

DYMSCO 담스코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사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敢히 해 볼 수 있는 제안!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원적외선 사용증명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적합 시험성적서
유럽CE인증(CE) 획득
삼성화재 생산물배상 책임보험2억원 가입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